

보육교사의 자기 모습 갖기

이주영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처음, 극빈층의 일하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탁아로 시작한 보육사업은 이제 여성의 취업율의 증가와 다양한 요구에 따라 현재 전국에 9천여개의 시설에서 그 이용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제도나 인식 역시 해마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아동의 보호적 측면이 강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는 보호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도 요구와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아동을 직접 대하고 가르치고 있는 종사자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보다 한 차원 높은 보호,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자기모습 갖기는 지금의 시점에서 교사 뿐만 아니라 시설장, 정부, 부모 등 모두 공유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1.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관련학과 4년제 또는 2년제를 졸업한 후 1급 자격으로 교사가 되는 것과 양성교육기관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자격으로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관련학과에서도 충분한 과목 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양성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기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저해하고 있다. 단시일 내에 많은 보육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비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평균 10시간 내외를 아동들과 함께 있다. 그렇다면 우선 교사 개개인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아동관을 가져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동관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아동의 전체적인 생활환경, 부모, 사회환경에 아이는 영향받고 있고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없이는 아동의 행동을 다소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로서 자기 교육철학을 세우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주는 것으로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이 영역에 대한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넘볼 수 없는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훌륭한 교사들이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만 멈추지 말고 쉽없이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이들에게서 해방!이 아니라 교사의 공부를 위해서 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2. 교사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자.

교육의 문제는 교사의 책임이자 권한이기도 한 부분이다.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올바른 교육관과 그것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교수환경이 필요하다. 앞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교수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간의 문제도 있고 교구·교재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의 연계, 다른 교사, 어린이집,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대한 문제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3세에서 6세 아동의 인격형성에 관련하여 전인적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린이집이 학원화하는 경향이 있다. 충분히 뛰어 놀고 눈맞춤을 해야 할 시기에 영어다 발레다 롤러스케이트다 속셈교육이다 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보여주기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교사는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에게 스스로 교육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 그 교육프로그램의 의의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원장과의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통하여 교육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시켜 나가는 민주적인 절차가 꼭 마련되어야 하겠다. 교구·교재를 준비하는 것 역시 근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시간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만이 과중한 업무로만 받아들이는 준비작업도 내용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첫째, 관리체계의 문제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으로 교육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라 그 경력이나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의 하나로서 보수에 있어서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보육교사도 부임을 하면 시설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유아교육과 출신 보육교사가 유치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안된다. 현재 관할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기는 하나 보육교사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는 잡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직을 하거나 구청에 임면보고를 시설장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혜택이나 국민연금 가입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정이다. 보수체제도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우선 교사 관리체계가 잡혀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직원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으로 제정, 시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개선목표를 최소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사한 학력자격을 가지고 동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우 역시 비슷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느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더라도 동일한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재원투입이 있어야 한다.

보육문제는 이미 사회적 당면과제이자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보육의 양적 문제에 지금까지 주력하여 왔다면 이제는 질적 문제를 끌어올려야 할 때이다. 그 중요한 주제는 종사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의 문제에서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보호자, 사회단체, 기업 등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으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 운영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정부에서 일정 정도 책임 지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 요구를 높여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종사자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봉급체계의 문제점으로

- ① 호봉책정에 있어서 학력, 자격, 경력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호봉으로 시작한다는 불합리성이다.-참고로 유치원교사는 학력, 자격, 경력 등을 반영.
- ② 교사를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이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인정의 비율도 5할과 10할인 경우, 두 가지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것은 종사자 보수를 낮추어 책정하기 위한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③ 최고 호봉에 있어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인데 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최고 호봉은 19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에서의 계속근무를 유도, 보장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조치이다.
- ④ 호봉승급에 관하여 타 직종에 비해 호봉승급액이 낮으며 그 기간 및 보수가 1월과 7월 연 2회로, 연 4회, 12회를 기간으로 두는 타직종과 비교해 볼 때 최고 3-6개월의 경력손실을 받고 있다.
- ⑤ 수당체계에 있어서 수당의 종류가 타직종에 비해 턱없이 적고 그 지급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낮은 수당액도 형평성을 잃은 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들 중에서는 '주거나 가능하면 주어도 좋다'는 식의 표현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례도 있다. (초과근무수당, 산전·후 휴가시 보수지급) 후생복지적 성격의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대책이 미흡하여 실제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정부의 보육재정 확충,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의 개정,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규정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에 대신하여

좋은 보육시설을 규정하는 많은 요소 중 가장 으뜸은 종사자의 제 역할에 대한 충실한 활동과 상호 관계의 긴밀한 협조라고 본다.

원장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교사, 교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원장이 만들어 가는 보육시설은 아이, 부모, 지역사회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다.